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음 8월 8일) 제213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소상공인 특별 지원책 마련

전북도, 사회보험료 지원·저신용자 특례보증 검토 애로 해결 솔루션팀 운영·카드수수료 등 문제 고민

전북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과 자금난 부담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는 여러차례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인상, 시장경직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특별지시했다.

또한 지난달 23일 전북도 소상공인 직능단체 대표와 간담회 갖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단체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지난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도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은 ▲1인 미만 사업체 두부누리 사회보험 일부지원(국민연금·고용, 40~90%)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월 최대 15만원 현금지원 ▲신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를 한시적 경감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 대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다.

이에 도에서는 영세사업자들이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에도 추가 부담해

야 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 지원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근로자 1인 평균 월 12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사업자 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경우 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면 영세사업자에게는 경영부담 완화,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감 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는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보증 상품 신설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1,000억원을 긴급 투입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특례보증 상품을 만들고 총 4,397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저소득 저신용자의 경우 일부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사들의 대출 기피 현상으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17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이차차액 보전을 기존 1~2%에서 3%로 1% 상향 지원하고, 내년에는 '이차보전액' 규모를 종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난 6월 평균 연 1.5% 수준을 연 1%로 인하한 바 있는 보증수수료를 0.8%로 재인하하고, 상환방식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거치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완화하여 상환 압박감도 줄일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애로를 현장에서 상담하고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생현장 솔루션팀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 컨설팅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상담을 하고 고충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정부와 도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지원사업을 몰라 혜택을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는 진행중에 있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결과와 현장 행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은 지난 14일 경기전과 풍남문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인 '2018전주문화재야행'의 두 번째 야행을 선보였다. 사진은 이날 열린 문화재 민속놀이 한마당.

찬란함, 밤 수놓다... 전주문화재야행 성료

전통무예 지무단의 검무 버리극악단 공연 등 선풍 왕의 음식 '포계' 제공 달빛차회로 휴식 선사 문화재 민속놀이 한마당도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의 색다른 야간 풍경과 다양한 문화재, 색다른 공연을 함께 즐기는 2018 전주문화재야행이 성공리에 치러지면서 체류형 관광객 확보를 위한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은 지난 14일 경기전과 풍남문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인 '2018전주문화재야행'의 두 번째 야행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지난 5월 25일 개막야행에 이어 문화재 향유 대중화를 위해 힘 없이 달려온 '문화재야행'의 폐막을 알리는 행사이기도 했다.

'문화재 술사의 8시작'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야행은 이른 저녁부터 청사초롱과 어진반차도, 알알이 수놓은 한지등이 거리를 밝히며 고즈넉한 한옥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은 가운데, 경기전의 밤이 열리는 순간인 오후 6시 역사의 문을 닫고 경기전 밖으로 나와 용안을 내비친 태조 이성계를 마주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국악신동'으로 잘 알려진 소리꾼 유태경양의 사회로 전통무예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지무단'의 검무 시범과 전통예술을 원료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두(頭)Dance무용단 △극단 깎두기 △버리극악단 △연희컴퍼니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며 관객에게 술사의 야심작으로 기억될 밤을 선물했다.

경기전 꽃담길과 경기전 서쪽 돌담길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야행의 인기 콘텐트인 한지 등을 만들기 체험은 지난 야행에 이어 대박 흥행을 이어갔으며, 올해 새롭게 선보인 실록만들기 체험과 한복가방 만들기, 용비어천가 탁본체험 등에도 연인 및 가족 단위 참가자가 줄을 이으며 관광객이 직접 참여한다는 축제의 본질적 의미와 기능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경기전 서문 돌담길의 이야기 술사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 풀어낸 조선왕조실록의 숨겨진 이야기와 조선시대 및 전주를 대표하는 그림인 전주지도, 태조어진,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소재로 연기를 통해 관객에게 내용을 손쉽게 전달함으로써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제공했다.

경기전 돌담길 주변으로는 왕의 음식이라 전해지는 '포계'를 판매하는 음식술사들의 모습도 이목을 끌었다. 포계는 기름에 튀긴 닭을 밀가루에 찰기름과 간장을 섞어 익힌 후 식초

와 함께 곁들여 먹는 음식으로, 야행을 찾은 관광객에게 의미와 정성이 담긴 밤참으로 제공됐다.

포계를 맛본 관람객들은 경기전 수복청에서 진행된 '달빛차회'를 통해 전통예법으로 올리는 현대적의 의미를 배우며 차 한 잔과 함께하는 휴식을 선물 받기도 했다. 달빛차회에는 좌식 자세에 불편함을 느끼는 외국인 관광객과 어르신들을 위해 입식 다과상도 별도로 준비됐다.

이와 함께, 이날 풍남문에서도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풍남문이 간직한 역사인 동학농민혁명을 재현한 '플래시몹'과 조선시대 저작거리를 연상케 하는 세트 구성과 수문장과 기성, 파계송 등 다양한 역할을 지닌 배우들이 광장을 메워 관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 '시간여행자의 풍남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거리를 지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또, 두 시간마다 웅장한 성벽에서 울려 퍼지는 대금과 가야금의 선율은 시대의 벽을 타고 관객의 귀에 전해졌다.

이밖에, 이날 야행에서는 닭싸움과 제기차기, 문화재 OX 퀴즈 등 민속놀이와 오락을 접목한 기획 프로그램인 '문화재 민속놀이 한마당'도 펼쳐졌으며, 전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의 참여 속에 축제의 백미인 거리공연도 경기전 서문과 동문 입구에서 활발하게 진행됐다.

/송희철 기자

전북상설공연, 추석연휴기간 무료관람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추석연휴를 맞아 전북을 찾는 귀성객 및 도민들을 위해 새만금상설공연장과 전북예술회관의 문을 무료로 연다.
재단은 추석연휴기간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해적'은 오후 2시에 새만금상설공연장, '뮤지컬 흥도'는 오후 4시에 전북예술회관에서 각각 특별공연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지

난 14일 밝혔다.

무료라도 지정석이므로 티켓을 예매해야한다.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온라인 예매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발권은 좌석이 조기 매진될 수도 있기에 전화(063-230-7482)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도 문화관광재단 흥승광 상설공연추진단장은 "추석 연휴

를 맞아 이번 무료공연을 관람하신다면 귀성객과 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적'은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새만금 아리울 예술창고에서 상연되며, '뮤지컬 흥도'는 12월 8일까지 매주 화, 수, 목요일은 오후 7시 30분에 금, 토요일은 오후 4시에 전북도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상연된다. /송희철 기자

풍요로움 한가위 되세요

주개최도시 익산

제99회 전국체육대회
THE 99th NATIONAL SPORTS FESTIVAL
2018.10.12(금) ~ 18(목) 7일간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THE 38th NATIONAL PARA GAMES
2018.10.25(목) ~ 29(월) 5일간

한가위를 맞이하여 고마운 분들에게 익산의 푸른인증 탐마루 선물세트로 진심을 전하세요~
추석명절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입처 : 탐마루 쇼핑몰 www.topmaru.net(063-838-6079)